傘下支部動靜

▲協會本部

1、90年 生藥생산 실적 자료제출 : (지시공문생약 6-11, 91·2·2日付발송) 본지시문은 각시·도지부장이 관할 지역전체를 종합작성하여 2月15日까지 本部에 필착토록 당부한바 있으나, 전남, 경북, 충북, 경기지부에서만 접수되었을뿐 여타지부는 삼금까지도 미접수상태임으로 업부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늦어도 2·27일까지는 빠짐없이 필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2、90年 會員확보 현황제출 : (지시공문 생약 6-11, 91·2·2日付) 본지시문은 각군·구 사무소장이 관할지역 회원확보 현황을 직접작성 2月15日까지 本部에 필착토록 당부한바 있으나 아래표의 접수분사무소현황외에 대부분의 분사무소는 미접수된 상태임으로 업부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각군·구 사무소장께서는 다소의 애로점이 있으시더라도 이를 지체없이 작성 오는 2·27일까지 필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확보 현황 접수집계 (90년도분)

강원도 : 영월, 평창, 양구, 태백(4개분사무소)

경기도 : 용인, 양평, 여주(3개분사무소)

경북도 : 울진(1개분사무소)

전남도 : 해남, 광양(2개분사무소)

충북도 : 진천, 괴산(2개분사무소)

3、生藥安定基金 운용관리 규정 確定 : 協會는 主務部處의 同意와 支援에 힘입어 昨年九月이후 추진해오던 生藥安定基金을 일부 造成하고 其合理的인 使用관리 方案을 體系的으로 制度化하여 目標액이 達成되는 대로 施行하기로 決定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 時機는 3月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制度에 依하여 使用되는 基金은 主로 對生產會員및 농가의 所得保護및 가격 安定에 寄與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4、中央價格査定委員會 구성 : 協會는 現生藥時勢表에 對한 不滿요소를 감소시키고 信賴度 높은 時勢를 전파하고자 中央本部에 『가격사정심의 委員會』를 구성하여 지난 2月5日부터 發足시킨바 있다. 本 委員은 경동市長內 生藥分野에서 유수한 專門人으로 조직되었으며 앞으로 月2回(15日, 30日)에 걸쳐 召集 總1백50余種에 對한 生藥品種 가격을 심의 사정할 것이라고 한다.

各支部綠生會 운영

▲경기도 支部

지난 1·22日 이응황 지부장 주관으로 서울에서 관하 특생회를 소집, 91年度 자체운영 方向과 本部지원책등을 논의하고 新年度를 맞이한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바 있다.

▲경북도 支部

지난 1·31日 배성한 支部長은 박건수 수성구소장을 主管으로하여 大邱에서 新年度 첫번째 綠生會를 召集, 白體운영 方向과 本部지원책등을 논의하고 會員相互間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바 있다.

▲충북도 支部

지난 1·31日 이종철 지부장은 청주에서 금년도 첫번째 관하 綠生會를 召集, 신년도 白體운영 方向과 협조체제 강화를 논의하고 會員相互間의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바 있다.

▲경남도 支部

김정만 지부장은 지난 2月5日 馬山에서 관하 綠生會를 召集하고 금년도 특생회 운영 方向과 中央本部와의 협조지원체제 정립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의 綠生會 擴大대책을 相互 모색토록 결의 한바 있다.

▲부산시 支部

박길수 支部長은 지난 1月9日 支部에서 관하 月例 綠生會를 召集하고 本部와의 支援협조체제 확립과 會員相互間의 今年度 운영方向을 논의하고,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한바 있다.

▲전북도 支部

김홍근 支部長은 2月20日 정영모 특생회장을 主管으로 하여 관하 綠生會를 召集하고 新年度 자체운영 方向과 本部와의 지원협조 강화문제등을 협의하였다.

▲충남도 支部

2·24日 天安支部에서 관하 특생회 소집계획.

■教育실시 現況

○삼도시호 계약재배 교육실시 : 지난1月16日 경기도지부에서는 여주군 농촌지도소가 主管한 세미나에 협찬하여 이지역 生產會員 및 一般生產希望농민 50여명에게 재배기술 전파로서 회세신장에 기여.

○중간지도층 소집교육실시 : 지난1月22日 협회本部에서는 分事務所長中에서 시호계약재배 중간책임자를 선정 소집하여 삼도시호계약재배에 대한 특별지도 교육실시(40명).

○지난1月25日 강원도 철원군 사무소주관으로 지역회원 約50명을 소집하여 삼도시호계약재배 기술교육 실시.

○2月25日 경북지부 주관으로 지역회원 1백여명 소집하여 시호계약재배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2月26日 경북 선산군 사무소 주관으로 지역회원 2백여명 소집하여 시호계약재배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금년도 농정의 기본방향

농가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으로

'91主要業務報告時 밝혀

조경식 장관은 12·3일 농어촌 대책 특별보고에 이어 1월25일 91년도 농림수산부의 주요업무 보고를 하였다. 이날 보고에서 조장관은 금년도 농정기본 방향을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에 두고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農水産物 輸入開放에 對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상대안을 보완, 통상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수산물 개방계획에 따라 91년 3월까지 92~94간의 자유화 예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입확대에 대응하여 관세제도나 산업피해구제제도 등을 개방화 시대에 맞게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91년에도 경지정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리율을 84%로 제고하고, 앞으로 농업용수 개발은 생활용수, 농공지구 용수개발을 병행, 추진하여 수리답율도 74%로 높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조성 10년계획」을 수립하여 2천년까지는 논 1백만헥타, 밭 20만헥타의 생산기반 완비를 목표로 추진키로 하였다.

농업 기계화는 전작분야 기계화와 공동이용 확대를 통한 이용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전작관리기를 2만7천대에서 올해는 3만5천대로 확대, 공급하며 기계화 영농단도 올해에는 4백개소 늘려 6천9백개로 확대, 조성키로 하였다.

아울러 농촌 진흥청에 「유전공학 연구소」와 「지역특화품목 연구소」를 설치하여 농수산 개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多樣한 農漁村 所得源 開發과 定住生活圈 造成

농공지구는 금년데 45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2백65개를 지정·조성하고, 농어민 직업훈련도 작년 1만1천 명에서 올해는 3만명으로 늘리기로 하였다.

농어촌 특산단지 1천68개소와 농어촌 관광소득 개발사업 1백64개소를 조성하여 농외 소득기회를 증대키로하였다.

또 농수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수출단지를 적극 육성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술과 9백16억원의 자금지원을 하고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1읍면1공장」운동을 전개하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산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도 준보전임지 1천4백91천헥타는 산업용지 등 타용도로 다양하게 공급하도록 하여 산지전용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밭등 소득작목의 주산단지 38개소와 휴양림도 27개소 확대 조성하는 한편 수산업의 적극적인 진흥을 위해서 인공어초 시설도 작년 5만5천헥타에서 6만4천헥타로 확대하고 이와 함께 양식어장도 올 연말까지 11만8천헥타를 적극 개발하여 연근해 자원을 보호조성해 나가며 지난 1월22일 가서명된 「대소 어업협정」의 조기타결을 추진하고 베링해 등 공해어장 규제에 적극 대응해서 어자원의 안정 확보를 추진키로 하였다.

◇농어촌대책을 발표하는 曺 長官

農水産物 價格安定과 流通構造 改善

채소류에 대해서는 생산농민과 생산자 단체간에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약정하여 하한가격을 보장한 「생산출하 약정제」를 마늘, 양파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고냉지 여름채소는 농협이 포전매취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해서 중간상인의 횡포를 견제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규모를 작년보다 9백10억원 증가된 6천8백6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91년 1월부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연동가격제를 폐지하고 가격을 자율화하는 동시에 하반기부터는 「도체등급제」를 실시하여 쇠고기는 10등급, 돼지고기는 4등급으로 구분하여 품질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도록 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糧穀管理制度를 改善

쌀 생산을 양적미 위주로 전환해서 통일쌀 수매예시량을 작년 4백50만석에서 올해에는 1백50만석으로 대폭 감축하였으며, 정부의 수매벼를 도정업체에 매출하는 「조곡매품사업」과 양질의 정부 일반미의 「공매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의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쌀의 계절진폭 20%내에서 허용하기로 하고 또 양곡가공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양곡 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벼의 수집·보관·조정 및 판매를 일괄처리하는 「미곡 종합처리장」 2개소를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아 92년부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므로서 양곡관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農漁村의 活力化를 促進

1헥타미만 영세 농어민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 2학년까지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실업계 고교 3학년생과 동등 학력인정 학교의 학생 들에게까지 확대하여 5백3억원을 지원, 20만8천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축협의 기능을 강화해서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입 농산물 관세와 사료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농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투자재원으로 지원토록 제도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함께 농어민의 건전 정신운동과 농어촌 잘살기 운동을 전개하여 농어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근검절약과 협동하는 생산적 기풍진작으로 새 질서·새 생활운동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경영여건 나빠졌다 91%

原價상승 수출부진

걸프戰 끝나면 好轉 내다봐

商議, 걸프開戰후 5백社 조사

서울지역 제조업체의 91·3%가 걸프전쟁이후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초 서울지역 5백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걸프전쟁후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업체가 19·2%, 앞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2·1%에 이르렀다.

이들 업체는 경영여건악화의 주된 내용으로 제조원가상승(28·5%) 수출부진(23·6%) 내수부진(14·1%) 자금사정악화(12·1%) 원자재확보난(10·6%) 수송비용 상승(5·8%)등을 꼽았다. 또 걸프전쟁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시책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화에 대해서는 50%가 호전될 것으로 보았으며, 35%가 「비슷하거나 예상이 곤란하다」, 15%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만 잘 극복하면 戰後의 여건은 나아질수도 있다고 商議는 설명했다.

한편 응답업체 3백14곳중 93%인 2백89개업체가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걸프전쟁후의 경영여건변화 : 34·3%가 물가안정을 통한 원가상승억제를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자금지원확대(18·8%) 수출지원제도확대(17·3%) 에너지절약관련시설투자·신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상지원등을 들었다.